3자녀 이상 둘째부터 가능, 방식·조건은 시·도마다 달라

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는 일반 배정을 받고 둘째부터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를 우선 희망할 수 있는 제도가 서울·광주·인천·대구·경북·충북·세종에 있습니다. 다만 같은 학교 배정, 근거리 배정 등 방식과 조건이 시·도마다 달라서 거주 지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. 가령 서울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가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교육감 선발 후기고를 희망하면 같은 학교에 배정합니다.

형제 재학 조건도 놓치기 쉬운데요. 형제자매가 고1 또는 고2일 때로 한정하며 고3일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. 즉 형이 고2라면 중3 동생은 같은 학교를 희망할 수 있지만, 형이 고3이면 어렵다는 말이지요. 또한 전북·강원은 같은 학교가 아니라 근거리 학교를, 부산·울산은 일반고별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우선 배정합니다. 방식별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 ⓝ

방식	지역	내용
같은 학교 배정	서울, 광주, 인천, 대전, 대구, 경북, 충북, 세종	3자녀 이상, 둘째부터 형제자매 재학교 희망
근거리 우선 배정	전북, 강원	거주지 기준 근거리 학교 우선 배정
정원 범위 내 우선 배정	부산, 울산	부산은 정원 20%, 울산은 5% 범위 내 우선 배정. 울산은 자녀 2인 이상이 고교에 재학하면 희망 시 동일 학교 우선 배정
4자녀 이상	충남	4자녀 이상 가구가 희망 시 형제자매 재학교로 배정 가능

More tip

광주의 경우 성별 차이로 인해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을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신청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

다자녀 가정이면 형제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받나요?

3자녀 중 둘째가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요. 형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배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,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궁금합니다.

취재 김세희 리포터(say2sei@naeil.com)
자료 각 시·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